

KIA 박정우, 올해 기회 잡을까

고졸 7년 차 외야수
마무리캠프에서 '집중 과외'
박찬호 롤모델 삼아 힘 키워



박정우

'박찬호 바라기' 박정우가 기회의 2023 시즌을 기다린다.

2022 시즌 KIA 타이거즈의 '기량 발전 상' 주인공을 꼽으라면 박찬호를 이야기 할 수 있다.

뛰어난 수비와 재치있는 주루로 KIA 유격수 자리를 잡은 박찬호는 지난해 130 경기에 나와 134개의 안타와 4홈런, 0.272의 타율을 기록했다. 모두 박찬호 개인 최고 기록이다.

그리고 2019년 39개의 도루를 기록하면서 '도루왕' 타이틀을 차지했던 박찬호는 지난 시즌 부지런히 출루하고 뛰면서 42개의 도루로 다시 한번 1위 자리에 이름을 올렸다.

새 시즌을 준비하고 있는 박찬호 옆에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선수가 있다. 외야수 박정우가 박찬호의 그림자다.

박정우는 2021년 '깜짝' 등장을 했던 고졸 7년 차 선수. 박정우는 2021년 시즌 전 진행된 팀의 자체 연습경기에서 좋은 수비와 함께 깜짝 홈런을 날리면서 월리엄스 감독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아마추어 시절에도 기록하지 못했던 '한방'을 날린 박정우는 이해 5월 1일 정식 변호를 받고 프로 데뷔전도 치렀다.

기대감으로 시작했던 2022년, 박정우

는 초반 16경기 출전에 그치면서 아쉬움 속에 시즌을 마감했다.

박정우는 제주도 마무리캠프에서 다시 출발선에 섰다.

신예 선수들로 꾸려진 마무리캠프에서 김민수가 어깨가 좋지 않아 초반 이탈하면서 박정우와 한승연 두 외야수로 캠프가 돌아왔다. 그만큼 박정우는 '집중 과외'를 받으면서 야구를 다시 배웠다.

박정우는 "1군에 있는 형들이 캠프 안 와서 연습할 시간도 많고, 생각할 시간도 많았다. 코치님과도 계속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생각했다"고 이야기했다.

그만큼 고된 캠프이기도 했지만 개인 훈련을 하면서 보내는 지금이 더 힘들다.

박정우는 "찬호형이 지난해 시즌 준비한 곳에서 훈련하고 있다. 월수금 센터 같이 다니면서 찬호형을 계속 따라하고 있다. 계속 붙어 다니면서 저녁에도 훈련하기도 한다"며 "마무리 캠프보다 10배는 힘든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박찬호 바라기'가 된 이유는 바로 성적이다.

박정우는 "벌크업을 우선 신경 쓰고 있다. 계속 살을 찌우고 있다. 찬호형 성적이 말해준다. 지난해 찬호형이 (벌크업 하고) 좋아졌다. 성적 좋아지면 같이 하자고 했었다. 커리어 하이다"고 웃었다.

야구 선수로서 큰 체격이 아닌 두 선수. 박찬호가 몸을 키우면서 실력을 키웠고, 박정우도 박찬호를 롤모델 삼아 힘을 더하고 있는 중이다.

박정우는 "살면서 훈련도 쳐줘야 한다. 연습경기 말고 진짜 경기에서도 쳐보고 싶다. 아직도 훈련했을 때 생각이 생생하다 (웃음)"며 "힘까지 키워서 경쟁력을 보여주고 싶다. (김)석환이와 팀의 미래로 역할을 하고 싶다. 기회가 온다면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새 시즌을 앞둔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셀틱, 조규성 이적료 40억 원 제시

유럽 축구 이적 전문가 공개
미네소타U·마인츠 영입 경쟁



조규성

한국 축구 국가대표 공격수 조규성(25·전북 현대)의 영입 경쟁에 뛰어들 것으로 알려진 국외 3개 구단과 이들이 내건 조건을 유럽 축구 이적 전문가가 공개했다.

유럽축구 이적 소식에 정통한 이탈리아의 파브리치오 로마노는 11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셀틱(스코틀랜드), 미네소타 유나이티드(미국), 마인츠(독일)가 조규성에 공적적인 영입 제의를 했다고 밝혔다.

각 구단이 내건 조건도 덧붙였다.

스코틀랜드 명문 셀틱은 300만 유로(약 40억 원)의 이적료에 조규성이 이후 다른 팀으로 이적했을 때 셀틱이 받는 이적료의 50%를 전복에 추가로 주겠다고 했다. 다만, 셀틱은 향후 이적료 일부를 나누는 '셀은' 조항에 따라 추가로 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600만 유로(약 80억 원)라는 단서를 달았다.

미네소타는 이적료로 세 구단 중 가장 많은 500만 유로(약 67억 원)를 제시했다. 여기에 미네소타도 30%의 추가 이적료를 내걸었다.

로마노는 국가대표 미드필더 이재성의 소속팀이기도 한 마인츠의 경우에는 300만 유로에 가까운 이적료를 제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조규성의 새 팀을 결정하기 위한 협상이 현재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시즌 K리그 득점왕 조규성은 한국 국가대표로 2022 카타르 월드컵에 출전해 조별리그 가나전에서 두 골을 몰아넣는 등 활약을 펼친 뒤 해외 이적을 추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민지, LPGA 국가대항 단체전 출전할까

한화생명 인터내셔널 크라운
현재 세계랭킹 14위
고진영·전인지·김효주 뒤이어
국내파 랭킹 유지가 관건



박민지

오는 5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국가대항 단체전 '한화생명 인터내셔널 크라운'에 '국내파' 박민지(25)가 출전할 수 있을지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화생명 인터내셔널 크라운은 8개국에서 4명씩 출전해 단체 성적으로 순위를 가리는데, 이미 한국은 미국, 일본, 스웨덴, 태국, 잉글랜드, 호주, 중국과 함께 출전을 확정했다.

국가별 출전선수 4명은 4월 4일자 세계랭킹 순으로 결정한다. 5월 5일 개막하는 대회 할 날 전이다.

12일 현재 세계랭킹으로 당장 선수를 뽑는다면 박민지는 고진영(28), 전인지(29), 김효주(28)와 함께 한화생명 인터내셔널 크라운에 출전할 수 있다.

5위 고진영, 8위 전인지, 9위 김효주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4번째로 세계랭킹이 높은 14위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3차례 열린 LPGA투어 인터

내셔널 크라운에서 2018년 우승, 2016년 준우승, 그리고 2014년에는 공동 3위를 하는 등 매년 우승 경쟁을 했던 한국팀에 국내파 선수가 출전한 적은 한 번도 없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주로 뛰는 국내파 선수는 LPGA투어 선수보다 세계랭킹 포인트를 쌓기가 어려워 세계랭킹 상위 4명에 포함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하지만 박민지는 이런 불리한 입지를 딛고 한국 여자 골프 '빅4'에 이름을 올려 한화생명 인터내셔널 크라운 출전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민지가 지난해 KLPGA투어 메이저 대회 2승을 포함해 6승을 올려 담은 워낙 뛰어난 활약을 펼친 덕분이지만, KLPGA투어 대회에 주어지는 랭킹 포인트가 많아진 효과도 봤다.

아울러 지난해 LPGA투어에서 한국 선수들의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사실도 한몫했다.

박민지가 한화생명 인터내셔널 크라운에 출전할 자격을 얻으려면 3월 말까지 한국 선수 가운데 세계랭킹 네 번째 자리를 지켜야 한다. 쉽지 않은 임무인 것이다.

KLPGA투어는 3월 말까지 대회가 없다. 출전 선수가 확정되는 4월 4일까지 랭킹 포인트를 올릴 기회가 없다.

반면 LPGA투어는 4월 이전에 6차례나 대회를 개최한다.

현재 박민지보다 세계랭킹에서 뒤지는 최혜진(24), 김세영(30), 이정은(27) 등이 박민지를 추월할 기회가 있다.

다만 박민지도 3월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LPGA투어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에 출전해 상위권에 입성한다면 세계랭킹 포인트를 득백 쟁길 수 있다.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은 LPGA투어 멤버가 아니라도 세계랭킹 20위 이내 선수라면 출전 신청서만 내면 나갈 수 있다.

박민지는 올해는 LPGA투어 대회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공언한 적이 있어 국내 대회가 없는 3월에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 출전은 고려할만하다. 결국 박민지가 한화생명 인터내셔널 크라운에 국내파 최초로 출전하려면 자신의 의지와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연합뉴스



파리 생제르맹(PSG)의 리오넬 메시가 12일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데 프랑스에서 열린 2022-2023 리그1 18라운드 양재와 홈 경기에서 프리킥하고 있다. /연합뉴스

프랑스 축구 '뒤끝 작렬'

'월드컵 챔피언' 메시 PSG 복귀 골 넣은 날 음바페 휴가 가고 구단은 공식행사 안 열어

카타르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를 우승으로 이끈 리오넬 메시(36)가 프랑스 무대 복귀전부터 득점포를 가동하며 승리에 앞장섰다.

메시의 소속팀 파리 생제르맹(PSG)은 12일(한국시간)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데 프랑스에서 열린 2022-2023 리그1 18라운드 양재와 홈 경기에서 2-0 완승을 거뒀다.

2선의 공격형 미드필더로 출전한 메시는 전반 5분 선제골의 기점 역할을 해내며 활약을 예고했다.

메시의 전진 패스를 받은 노르디 무키엘레가 오른 측면에서 울린 크로스가 위 에키타케의 선제골로 이어졌다.

후반 28분 메시는 직접 골 맛도 봤다. 페널티박스 안에서 무키엘레의 패스를 받고 골키퍼와 1대1 상황을 맞은 메시는 반대편 골대 구석으로 침착하게 차넣으며 골망을 흔들었다.

리그 14경기에 출전한 메시는 8골 10도움을 기록 중이다.

15승 2무 1패가 된 PSG(승점 47)는 2위 RC 랑스(승점 41)에 승점 6 차로 앞선 선두를 질주했다.

양재(2승 2무 14패-승점 8)는 리그 최하위인 20위에 자리했다.

이 경기는 메시가 월드컵 결승전에서 승부차기 끝에 팀 동료 킬리안 음바페(25)가 이끈 프랑스를 꺾은 후 처음 치른 공식전이다.

월드컵 휴식이 직후 PSG는 리그 2경기과 컵 대회 1경기를 치렀지만, 메시는 우승 후 아르헨티나에서 행사와 휴가 등을 이유로 출전하지 않았다.

메시의 월드컵 결승에서 맞붙은 음바페는 이날 휴가를 받아 선수단과 함께하지 않았다.

두 선수가 월드컵 이후 처음으로 호흡을 맞출 경기는 16일 스타드 렌과 19라

운드로 전망된다.

이날 메시는 지난달 30일 별세한 '축구 황제' 펠레의 얼굴이 그려진 상의를 입고 그라운드에 나타나 몸을 풀었다.

한편 '월드컵 챔피언' 메시가 홈 경기장으로 돌아온 날이지만 구단 차원의 공식 기념행사는 열리지 않았다.

프랑스 일간 르파리지에 따르면 PSG는 메시가 훈련장에 복귀한 지난 주, 자체 행사에서 특별 트로피를 수여하며 환영과 기념의 뜻을 충분히 전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애스턴 빌라) 등 아르헨티나 선수가 자국서 열린 우승 퍼레이드 중 음바페 등을 조롱하는 듯한 행동을 보여 논란이 된 가운데, 기념행사 때 홈 팬들이 야유를 보내거나 돌발 행동이 벌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고 르파리지는 전했다.

메시의 월드컵 결승에서 맞붙은 음바페는 이날 휴가를 받아 선수단과 함께하지 않았다.

두 선수가 월드컵 이후 처음으로 호흡을 맞출 경기는 16일 스타드 렌과 19라

/연합뉴스

박항서, 2022 베트남 최고 외국인 지도자 선정

박항서(64) 감독이 베트남에서 2022년 최고의 외국인 스포츠 지도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누렸다.

현지 매체 VN익스프레스 등에 따르면 박 감독은 지난 11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빅토리 컵'(Victory Cup) 시상식에서 외국인 감독상을 수상했다. 박 감독은 "제게는 5년 동안의 베트남

대표팀과 동행을 마지막으로 끝내는 한 해다. 귀중한 상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내게는 베트남에서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남아 있다"며 "(미쓰비시컵) 결승전이 남아 있다. 이를 잘 마무리해 베트남에서 임무를 완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정중의

박수를 받았다.

박 감독은 "결승전을 잘 치러서 베트남 국민에 선수들이 꼭 좋은 소식을 전하도록 감독으로서 맡은 임무를 다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빅토리컵은 베트남 스포츠 당국이 주관하는 시상식으로 스포츠 전 종목을 통틀어 한 해 가장 크게 공헌한 선수, 감독, 팀을 뽑는다.

박 감독은 베트남 태권도 국가대표의 김길태 감독과 등과 경쟁 끝에 이 상의 주인공이 됐다.

/연합뉴스